

DAEWOO

투자정보메모

사내 한

WE BRING THE WORLD TO YOU

성기능(性機能) 개선제 시장의 현황 및 관련 제약사에 대한 투자 의견

1999년 9월 30일 #99-382

투자포인트 및 투자 의견

- 국내 성기능 개선제 시장은 성장 초기단계로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증치료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조루증치료제는 상장제약사중 태평양제약, 중외제약, 국제약품이 발매중이고 발기부전치료제는 모두 외자계 제약사가 판매중
-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2000년 상반기까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의약품재분류 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2000년 하반기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조루증치료제의 잠재시장규모는 환자중 3%에서 10%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 120~400억원으로 추정
- 태평양제약을 제외하면 조루증치료제의 판매가 관련제약사의 투자 의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성기능개선제와 관련된 제약사중 중외제약의 투자 의견은 매수, 태평양제약과 국제약품의 투자 의견은 중립 유지

<표 1> 조루증치료제의 시나리오별 잠재시장규모

시나리오	사용회수(회/년)	단가(원/회)	시장규모(억원)
환자중 3% 사용시	50	2,000	120
환자중 5% 사용시	50	2,000	200
환자중 10% 사용시	50	2,000	400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임진균 (02-768-4194)

jklim@daewoo.securities.co.kr



중외제약은 매수, 태평양제약과 국제약품은 중립

성기능개선과 관련된 의약품중 조루증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상장제약사는 중외제약, 태평양제약, 국제약품이고 대웅제약도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상장제약사중 중외제약(A0106)의 투자 의견은 매수, 태평양제약(A1657)과 국제약품(A0272)의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종전대로 유지한다. 매출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 제약사중 태평양제약의 경우 조루증치료제가 투자 의견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국제약품, 중외제약은 아직 조루증치료제의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태평양제약의 SS크림은 '99년 9월부터 1년간 약 70억원의 매출액을, 중외제약의 비엠겔은 발매 2개월만에 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최근에 발매된 국제약품의 멘스크림은 '99년중 10억원의 매출을 기록 할 전망이다. 중외제약의 투자 의견은 조루증치료제의 판매와 상관없이 매수를 유지하고, 태평양제약의 투자 의견은 조루증치료제의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력품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중립을 유지한다. 국제약품의 투자 의견은 멘스크림의 향후 판매추이와 기존 영업부문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나 현단계에서는 중립을 유지한다.

<표 2> 조루증치료제 관련 상장제약사의 투자 의견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 억원, 원, 배)

회사구분	투자 의견	결산기	매출액	영업 이익	경상 이익	순이익	EPS	PER	PCR	EV/ EBITDA	BPS	주가 (99.9.29)
중외제약 (A0106)	매수	12/98	1,657	257	74	41	875	29.5/11.3	10.1/3.9	5.3	21,757	-
		12/99F	1,820	254	95	123	2,568	5.7	3.8	4.1	20,389	
		12/00F	2,010	274	119	79	1,642	8.9	5.2	4.1	21,790	14,600
		12/01F	2,180	292	132	87	1,811	8.1	4.8	3.9	23,005	
국제약품 (A0272)	중립	3/98	483	81	16	12	734	37.7/4.3	15.4/1.8	5.1	8,543	-
		3/99	586	77	17	13	586	20.5/6.0	8.8/2.6	5.4	16,058	
		3/00F	575	72	24	18	767	9.6	4.8	4.5	16,262	7,350
		3/01F	620	80	28	21	906	8.1	4.4	4.3	16,727	
태평양제약 (A1657)	중립	12/98	426	91	17	8	389	42.4/14.7	15.5/5.4	4.2	8,694	-
		12/99F	440	52	26	14	710	18.0	8.3	6.4	9,315	
		12/00F	472	61	33	18	885	14.4	7.8	5.8	9,865	12,750
		12/01F	505	67	36	20	980	13.0	7.4	5.5	10,690	

자료 : 사업보고서, 예상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성기능개선제 시장은 성장초기단계로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증치료제가 주류

성기능개선과 관련된 의약품(성기능개선제)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증치료제로 대별된다(광의로는 정력증강과 관련이 있는 일부 자양강장제나 영양제, 불감증치료제 등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함).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성장초기단계이다. 조루증치료제의 경우 20여년전부터 안국약품이 티스토롱(초기에는 수입판매, '90년부터 국내제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명문제약, 신신제약 등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였으나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드러내 놓고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성장에 한계를 보였다. 발기부전치료제로도 한국얀센의 뮤즈, 한국업존의 카버젝트(이상 성분명 알프로스타틴)가 발매고 있으나 아직 시장도입 단계이다.

'97년에 미국 화이자가 발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 발매첫해 매출액 10억\$ 초과)가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성기능과 관련된 의약품이 관심을 끌었고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98년에 태평양제약이

조루증치료제 SS크림(제일제당이 개발 및 생산)을 발매하면서 성기능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비아그라의 국내판매를 허가하고 성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성학회'를 발족한 것은 성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가치관 정립을 가속시킬 것이고, 그 결과 관련 의약품시장의 고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또한 중외제약(대유신약과 코마케팅), 국제약품 등 대형제약사의 잇따른 신규진입도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현황

제품명	판매회사	발매	성분명	제형
뮤즈	한국얀센	'97.1	알프로스타딜	요도좌제
카버젝트	한국업존	'98.5	알프로스타딜	주사제
비아그라	한국화이자	'99.10	실데나필	경구제

자료 :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작성

대형제약사의 신규참여 증가로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고성장 전망

국내 조루증치료제¹⁾의 시장규모에 대한 업계의 추정치는 100~300억원으로 매우 다양하다. 전화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사노바(명문제약), 티스토롱(안국약품), 베로스(대림제약), 디펜롱(신신제약), 듀베(고려제약) 등 기존 5개 제품의 '98년 총매출액은 약 15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SS크림(태평양제약)의 '98년 매출액 30억원을 더하고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조루증치료제의 '98년 시장규모는 60~80억원으로 추정된다. '99년에는 신제품의 가세와 기존 제품의 매출회복세로 시장규모는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고 2000년 상반기까지는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될 2000년 이후에는 의약품제분류 등 제도변화나 시장여건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9년 8월까지 SS크림의 매출액은 39억원이었고 비엠겔은 발매 2개월만에 18억원이 판매되었다. 향후 2~3년간 국내 조루증치료제시장은 SS크림(태평양제약), 비엠겔(중외제약/대유신약), 멘스크림(국제약품) 등 신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가 주도할 것이다.

조루증환자 5%가 사용할 경우 조루증치료제의 잠재시장규모는 200억원

국내 조루증환자수는 조루증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남성의 30~50% 수준인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5%인 20만명이 연간 50회씩 사용하고 1회 사용가격이 평균 2,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조루증치료제의 잠재시장규모는 연간 200억원이 된다(매출액기준으로는 120~140억원으로 추정).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조루증환자중 사용비율이 3%로 낮아지면 시장규모는 120억원(동 72~84억원)으로 줄어들고 10%로 높아지면 400억원(동 240~280억원)이 되어 소비자의 사용행태와 판매회사의 마케팅활동이 제도변화와 함께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즉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잡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시장으로 마케팅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¹⁾ 발기부전치료제 3개 제품은 한국얀센(뮤즈), 한국업존(카버젝트), 한국화이자(비아그라) 등 비상장인 외자계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조루증치료제에 관해서만 분석할 예정. 국내에서는 동아제약과 SK케미칼이 실데나필유도체를 도출하여 발기부전치료제로 개발중이나 초기단계

<표 4> 조루증치료제의 잠재시장규모(시나리오별)

시나리오	사용환자수(만명)	사용회수(회/년)	단가(원/회)	시장규모(억원)(매출액기준)
환자중 3% 사용 가정	400X0.03=12	50	2,000	120(72~84)
환자중 5% 사용 가정	400X0.05=20	50	2,000	200(120~140)
환자중 10% 사용 가정	400X0.1=40	50	2,000	400(240~280)

주 : 시장규모는 소비자가격 기준(매출액기준은 30~40% 할인한 금액)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5> 주요 조루증치료제 발매현황

(단위 : 억원)

제품명	발매 (코드)	판매회사 (형태)	성분 (형태)	판매가격* (사용회수)	매출액** ('98년)	특징 및 장단점
SS크림	'98 (A1657)	태평양제약	한방제제 (크림)	10,000원 (2회)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능, 효과에 유일하게 조루증치료제로 표시 가능(타제품은 표시불가***) · 한방제제로 부담감이 작음 · 지명도가 높고 시장선점의 잇점 · 사용 불편 : 1시간 이전 도포, 끈적임, 세척후 사용 · 판매단가 높음
비엠겔	'99 (A0106)	중외제약 (비상장)	리도카인 (겔)	10,000원 (4~5회)	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효성 : 5~10분전 도포 · 무색, 무취, 무자극성 겔제(특허출원) · 코마케팅으로 유통망이 광범위 · 같은 성분의 기존제품이 많고, 판매단가 높은 편임
멘스크림	'99 (A0272)	국제약품	벤조카인 (크림)	30,000원 (8~10회)	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효성 : 5~10분전 도포 · 부작용이 작고 무색 민트향 · 평상시 마사지로 조루 예방효과 · 사용편리 : 세척없이 사용 가능 · 후발제품이면서 원재료 단가 높음
사노바	'93 (비상장)	명문제약	리도카인 (분무식)	10,000원 (15~20회)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효성 : 3~10분전 도포 · 초기시장에 참여(지명도 확보) · 단일성분으로 자극감이 작음
티스토롱	'90 (비상장)	안국약품	디부카인 (분무식)	10,000원 (15~20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선점 : 80년대 초부터 수입품 판매 · 발기력 증강을 위해 호르몬성분 포함(조루예방 + 발기력 증강) · 30대 이상이 주목표 시장 · 1시간전 국소에 도포
듀베	'97 (비상장)	고려제약	리도카인 (분무식)	10,000원 (15~20회)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효성 : 3~10분전 도포 · 용기수입 : 디자인 우수, 사용편리
디펜롱	'93 (비상장)	신신제약	리도카인 (분무식)	10,000원 (15~20회)	1.0	· '97년 생산중단
베로스	'95 (비상장)	대림제약	리도카인 (분무식)	10,000원 /15~20회	2.3	· 15~30분전 도포. 세척후 사용

주 : 1) * 판매가격은 약국에 따라 상이

2) ** 전화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3) *** 타제품은 '남성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등으로 표기

자료 : 전화면담, KIMS, 기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작성

조루증치료제 시장의 장기적인 고성장에는 걸림돌 산재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잇따른 신제품 발매에 따른 판촉활동 강화, 성에 대한 개방적 이미지 고양, 호기심에 따른 일시적 수요증가, 유통재고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고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이는 SS크림과 비엠겔의 판매호조가 초기 유통재고와 호기심에 의한 일종의 가수요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이다. 게다가 대중광고가 불가능하여 판촉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성이나 조루증치료제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속도도 점차 감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추진중인 의약품 재분류시 현재 일반의약품(SS크림은 지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루증치료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의약분업 실시후 조루증치료제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마취성분의 함량이 매우 낮아 일반의약품으로 임상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안(미확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외제약(A0106) : 투자의견 매수

중외제약은 자회사인 대유신약의 조루증치료제 비엠겔을 코마케팅(시장을 분할하여 공동판매)하고 있다. 비엠겔의 성분은 기존의 조루증치료제와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이지만 제형을 젤형태로 변경한 제제이다(국내 특허출원). 비엠겔은 '99년 7월에 발매된 후 2개월만에 약 18억 원의 매출액(중외제약이 8억원 판매)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약국내 유통재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경쟁제품의 신규참여, 경쟁사의 판촉활동 강화로 성장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중외제약의 전체 매출구도를 고려할 때, 비엠겔의 판매가 동사 투자의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태평양제약(A1657) : 투자의견 중립

태평양제약은 제일제당이 섭수 등 9가지 생약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조루증치료제 SS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SS크림은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1년동안 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동사의 최대 주력품인 관절염치료제 케토톱의 매출부진을 상당부분 만회하였다. SS크림은 영동세브란스병원, 동아대 부속병원 등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 받은 조루증치료제로 경쟁제품중 유일하게 효능 및 효과에 조루증치료제라고 표기할 수 있는 제품이다(국내외 특허출원). 타사제품은 대부분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효능 및 효과에 조루증치료제라고 표기할 수 없다. 한방제제로서 부작용이 적고 소비자의 거부감도 덜한 편이지만 사용이 불편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흘이다. 지금까지 SS크림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제품의 잇따른 등장으로 향후 성장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밝지 않고 기존 주력품의 매출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태평양제약의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

국제약품(A0272) : 투자의견 중립

국제약품은 오존코리아가 수입하는 조루증치료제 멘스크림을 '99년 9월부터 발매하기 시작하였다. 멘스크림은 국내 최초로 국소 마취제인 벤조카인 성분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주로 리도카인제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리도카인제제에 비해 침투성이 낮

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세척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입풀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SS크림 다음으로 비쌈). 동사의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30억원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할 경우 투자의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항생제 원료의약품의 수출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투자의견 종립을 유지한다. 의약품의 재분류와 약국으로부터의 재발주 동향을 보면서 투자의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참고> 조루증이란?

조루증은 의학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음

조루증의 정의는 의학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발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정을 수의적(隨意的)으로 조절할 수 없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생원인은 심리적 원인과 기질적 원인으로 분류

조루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심리적 원인과 기질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주위환경, 불안 공포,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심리적 원인에 의한 조루증이고, 포경, 과다표피, 예민한 귀두, 전립선염, 요로감염증, 교감신경계 이상, 음주, 해열제 및 마약복용 중단에 따른 금단현상,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기질적 원인에 의한 조루증이다.

유형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분류

조루증의 유형은 첫번째 성행위시부터 계속 이어진 1차성 조루증과 어느날 갑자기 생긴 2차성 조루증, 1차와 2차의 혼합형 조루증으로 구별된다. 심인성 조루는 대뇌의 성감이 지나치게 강해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흥분하여 발생하고, 가성 조루는 장기간의 금욕, 성행위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미숙한 초보자나 독신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과민성 조루는 성기의 감각이나 사정 신경이 너무 예민해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에도 그대로 사정해 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쇠약성 조루는 중년 이후 및 정신 노동자에게 흔한 유형으로 절정감까지 참지 못하고 사정근육이 이완되어 정액이 배출되는 상태이다.

행동치료법, 약물치료법, 수술법 등을 통해 치료가능

조루증의 치료방법에는 크게 행동치료, 약물치료, 수술 등 3가지가 있다. 행동치료는 훈련을 통해 사정감각의 조절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쥐어짜기법과 시작-정지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약물치료를 위한 약물에는 항우울제나 교감신경차단제 등 경구제와 국소마취제로 귀두부위에 도포하여 감각을 완화시키는 외용제가 있다.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에 실패한 경우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음경배부신경 차단술 등 수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